

上端 옷자락이 밖으로 뒤집혀 늘어뜨려져 있고 굵은 옷주름을 波狀으로
浮出하고 下肢部는 垂直한 衣褶에 가리어 足部는 簡略히 處理되었다.
結局 全體의 印像은 仁王像이다.

〔註〕 全北日報 一九六〇年二月二十七日字「全羅山川」이라는 一文 속에 當時
筆者가 踏査한 상황을 기록해 둔 것이 있다.

資料

興輪寺址 出土瓦塼

秦 弘 燮

興輪寺가 新羅最初의 寺刹임은 周知의 事實이고 寺址가 慶州市 沙正
里로 推定되어 土築으로된 金堂址 基壇部가 遺存한다. 藤島亥治郎가 學
生時節에 이곳을 訪問했을때는 礎石이 잘 남아 있어 七間 四面의 建物이
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① 一九二八年 再訪問時는 二個의 礎石만을 남
기고 나머지는 모두 移動되었었다 한다. 史記에 傳하는 記錄과 綜合하



여 보아도 規模가 컸
던 것은 事實이다.

最近 數年 동안에
이 寺址에서 瓦塼이
蒐集되었으며 同遺
物이 매우 注目되는
바 있었다. 從來에
도 瓦塼이 蒐集된 일
이 있었으나 그 중에
는 近來에 同寺址에
서 出土된 것과 比

較하면 大體로 同類의 것이나 部分的으로 다른 樣式과 紋樣을 볼 수 있
고 그 中에는 全然 새로운 例도 있어 여기서 一括 記錄하여 두고자 한
다.

一、寶相華紋方塼

四一·五cm×四二·五cm×一〇cm에 무게 七kg의 大作이다. 周緣에
若干의 磨損이 있으나 거의의 完形을 維持하고 있다. 新羅古瓦研究 圖版六
十八에도 이와 같은 方塼의 寫眞이 실려있으나 그것은 破損品이고 彫
刻도 鮮明하지 않다. 文樣은 兩者가 거의 同一하여 表面과 一側面에
裝飾 文樣이 加飾되었는데 表面에는 〇·九cm의 周緣帶를 둘러싸고 紋
樣이 있는 側面은 一·七cm의 좁은 珠文帶로 되어있다. 그안에
五cm 幅의 唐草文帶를 두고 幅一·七cm의 珠文帶를 또 둘러쌌다.

周緣帶의 內角과 안의 珠文帶의 內角을 連結하여 對角線을 그었고 二
七cm 四方의 內區에는 八葉 潤瓣寶相花文과 中心에 重瓣 四葉花文이
있다. 側面에는 潤葉을 配合한 唐草文이 있다. 方塼으로서 가장 큰
것이며 紋樣도 雄渾한 氣魄이 넘치고 있다.

二、圓瓦當

興輪寺址出土의 圓瓦當은 「新羅古瓦研究」 「綜合古瓦研究」 등에 數種
이 실려있고 그 手法으로 보아 時期를 달리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
수 있다. 그 中에 「綜合古瓦研究」에 있는 한點과 ② 이 瓦當이 表面文
樣에 있어서 全然 同一하다. 그러나 「綜合古瓦研究」의 瓦當은 出土
地點의 明示가 없을뿐 아니라 下顎文樣이 없는데 이 瓦當에는 下顎文
樣이 있는點이 다르다. 이 瓦當에 보이는 下顎紋樣은 厚三·五cm의
下顎帶에 徑二·五cm의 大花形과 徑一·五cm의 小花形을 小二大一
의 順으로 押印하고 있다. 下顎文樣이 있는 興輪寺址 圓瓦當이 있기
는 하나 ③ 表面紋樣이 다르므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. 이 瓦當은 破片
이지만 直徑二〇·六cm의 復原值를 볼 수 있는 大作인 點과 刻明한
彫鏤가 方塼과 相通한다.

三、平瓦當

全長 三五cm, 瓦厚 三·八cm, 瓦當厚 四·三cm의 雄作이다. 表面紋

樣이 類似한 興輪寺出土瓦當이 「新羅古瓦研究」에 실려 있으나 ④ 이 것 은 中央의 香爐를 向하여 나르는 飛天兩軀가 相對해서 있고 天衣가 길게 달려 거의 瓦當兩端에 이르렀으며 間地에는 飛雲을 주로 飛天下部에 配置한 點 같은 基本形은 大體로 同一하나 細部的으로 飛天頭 上에도 左右로 飛雲文이 하나씩 있고 飛天의 天衣도 다른 點으로 보 아 한 型에서 떠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. 그 뿐 아니라 既出 瓦當이 四周에 連珠文帶를 둘러고 있는데 比해 여기서는 上部에 幅一·三cm 의 上端連珠文帶와 그 밑에 幅二·四cm의 飛雲紋帶를 一cm의 段을 두 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附着시킨 點이 特異하다. 여기의 飛雲文 은 下向하고 있음이 다를 뿐 飛天 周圍의 그것과 手法은 같다. 紋樣의 彫鏤가 前掲 圓瓦當과 같은 속씨이며 크기에 있어서도 圓瓦當과 같 어 올린다.

四、鬼面瓦

損傷이 많아 上半部가 切斷되어 없어졌으며 眼球와 上唇部에도 損傷이 있다. 現高二·六cm 下幅三〇·五cm 厚 上端에서 四cm 下端에서 三cm이다. 鬼面瓦로가장 크며 彫刻도 雄偉古拙하다. 下部에 크게 버린 입이 거의 全幅을 차지했고 六個의 下齒가 보인다. 큰입 한복판에 一·二cm의 幅을 가진 큰 혀(舌)가 내 밀려 글은 위로 말렸다. 그 위에 코 와 上齒가 있을 部分은 損傷을 입었다. 다시 그 위에 큰 두 눈이 있 으며 眼球에 걸쳐 그 上部는 없어졌다. 周圍로는 굵게 表現된 수염 이 있을 뿐 周緣帶는 없다. 素朴莊重한 手法이나 大膽한 刀法이 다른 鬼面瓦에 比할 바 안된다. 背面은 扁平하며 兩眼 사이에 半破된 釘孔이 있다. 徑이 一·五cm이다. 크기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發見된 例中에 서 巨作에 屬하며 氣魄이 넘치는 傑作의 하나다.

以上の 瓦磚類는 모두 大作이라는데 共通點이 있고 彫刻이 刻明雄 大한 點에서 또한 共通된다. 이 一連의 遺物들을 볼때 이 瓦磚을 使 用한 建物 또한 雄壯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. 藤島氏가 目擊한 바 七 間四面의 建物이 있었으리라는 遺址와 또 同遺址에서 發見된 建物裝 飾에 使用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 靑銅製 金屬遺物⑤들과 아울러 생

각할때 往時의 興輪寺가 國家의 大利로서의 面目을 充分히 갖추고 있 었으리라고 생각된다. 이 一連의 遺物은 規模나 彫刻手法으로 보아 統 一을 前後한 時期의 作品으로 생각된다.

註

- ① 藤島亥治郎「朝鮮建築史編」
- ② 「綜合古瓦研究」附圖 第七面 梅原氏附圖第七
- ③ 京都帝大「新羅古瓦研究」圖版 第七의 一一一
- ④ 同 圖版 第四五의 六七五
- ⑤ 이 遺物에 對하여는 따로 論述할 機會가 있을 것이다.

昌德宮秘苑 演慶堂의 金具

申 榮 勳

一九六二年 初夏以來 演慶堂에 注意을 기울여 오다가 六五年 晚春 閔 丙燾氏의 別莊을 模建하기 위하여 國博 崔淳淳 美術課長님의 敎示에 따 라 李光奎氏의 도움을 얻어 本格的인 實測을 進行한 바 있었다.

이 때 關心을 두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建物에 使用된 金具에 關한 것이었다.

周知하는 바와 같이 演慶堂에 對하여는 先學들의 論考가 있었고 特히 關野貞氏에 依하여 細部에 이르는 報告가 있어 이제 새삼스럽게 言及할 餘地가 없지만 이 建物에 使用된 金具에 關하여는 그 一括의 介紹가 없 었기로 實測한 規格을 例示할 幾몇 가지 問題點을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. 純祖 二十八年에 建立되었다고 하는 演慶堂은 俗稱 九十九間이라고 하 는 大規模의 建物이나 實際로는 內堂과 舍廊채의 二棟으로 集約될 수 있 겠고 그 중에서도 舍廊채가 代表的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.

이 舍廊채는 十四間 建坪二十九坪으로 이루어진 單層 ㄱ字집인 바 잘 다듬어진 長臺石上에 어우러지게 자리잡고 있다.

이 집에 使用된 各種 金具는 대부분 門扉와 連關을 갖고 있는데 門扉